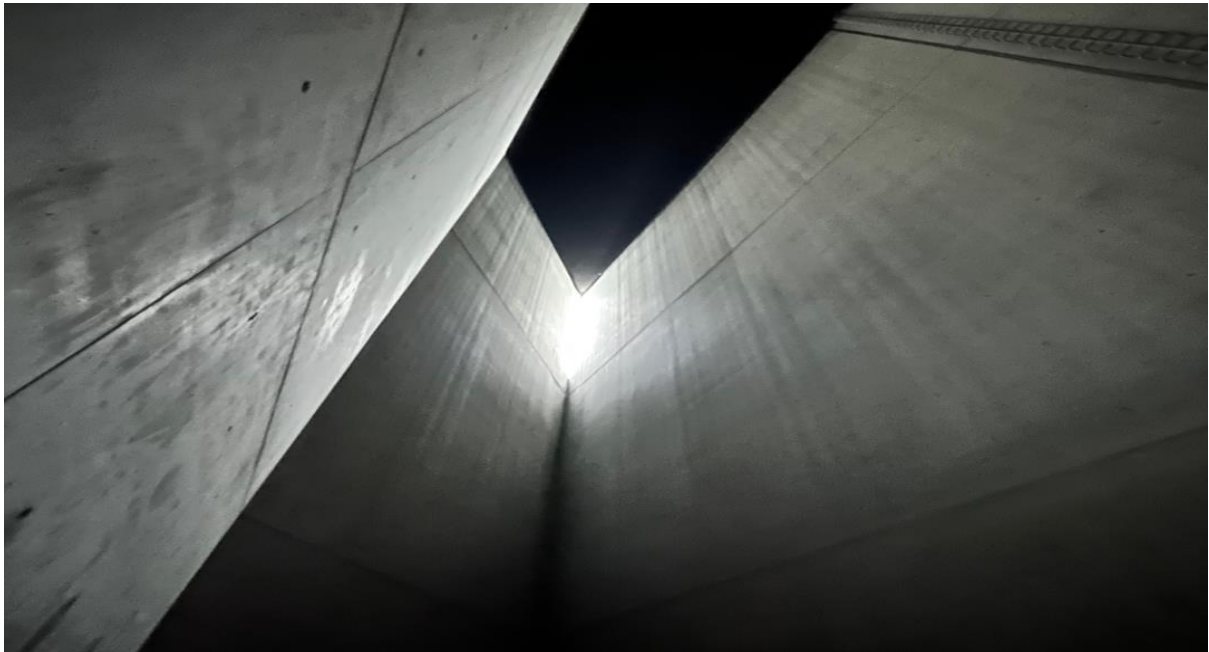


## 황예영 평화드림5만리 유럽5개국을 다녀온후...

우선 저는 장로회 교회와 교단을 다니고 있지만 아빠의 지인 목사님의 소개로 평화드림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 였고 특히 살면서 감리교 사람들과 접할 일이 없을 텐데 이번 기회로 접하게 되었고 너무나도 좋은 목사님들 감독님 또한 유럽에서 사귄 형 누나 동생들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인격적으로 선한 사람과 또한 목사님 자녀들도 많아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교제를 한 것이 진심으로 감사하다.



저희가 많은 도시 많은 국가를 방문을 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감명에 남았던 곳은 독일 이었습니다 독일에 암흑속에서 빛을 발하다 라는 의미 있는 곳도 방문을 하고 많은 역사 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독일에는 교회,성당이 엄청 크고 웅장해서 마음 속 여운이 오랫동안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좋았습니다!  
소리와 외관과 물론 그 아픔도 있겠지만 다음번에 유럽을 온다면 꼭 다시 방문을 해보고 싶은 만큼 독일이 제일 좋았습니다.



이 곳은 한국으로 말하면 국회의사당 이라는 장소인데 다른 것보다 도시 전경이 한눈에 파악이 되고 독일 국기가 제일 높은 곳에 자랑스럽게 있다는 것 자체가 독일 국민들이 정말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여기는 프라하로 기억을 하는데 모세의 동상이 도심 한복판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의미가 있는 도시-국가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프라하에서 한인교회(침례회)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 봤지만 정말 복음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 습니다.

다음으로는 폴란드에 위치해 있는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입니다.



여기는 말이 필요 없지만..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정말 인간들도 아닌 것이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모두 가스실로 데려가서 죽이고 힘세고 건강한 사람들만 일을 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 포로로 잡아서 수용을 한 수용소로 전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만큼 유명한 곳이다 한국에 태어나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감사할 따름이다. 만약 저 시대에 저 장소에 태어났다면 누구나 예외 사항 없이 이유 없이 죽었을 것이다..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마지막 밤에 뮤지컬을 보고 난후 찍은 야경입니다.. 정말 눈에 담을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고 교회와 성당 또한 너무 웅장하고 아름다워서 입이 안다물어질 만큼  
좋았습니다 감상은 짧게 여기 까지 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뽑아주셔서 유럽을 가게 해주신 은희곤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먼저 친근하고 따뜻하게 해주신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기록홍보팀과 같이 촬영하고 교제 할수 있어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조에서 만났던 동생들 그리고 형 너무나도 좋았고 그 외에도 같은 조는 아니었지만  
친해진 여러 형 누나들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도 평화드림에 참여해서  
같이간 사람들과 또 같이 가서 교제하고 더 친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